

## Music Psychotherapy Program on Acculturative Stress for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Chung, Hyun Chung\*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music psychotherapy program on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who are experiencing acculturative stress, and to discover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the participants' acculturative stress. This study targeted four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who belonged to an H afterschool class in Seoul and performed the program in individual sessions for about 40 minutes per session, totaling 14 sessions.

The research result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fter comparing the results of acculturative stress score that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ecution of the music psychotherapy program, the mean of the scor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32.75 to 23 average. Furthermore, as a result of conducting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lingual responses that the participants demonstrated in musical activity, in relation to acculturative stress, the participants were found to experience a positive chang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music psychotherapy program offers consistent support through music to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who are covering psychologically and experiencing difficulty in adaptation, and reinforces inner resources through their positive self-perception, which indicates that it can be an effective mediation in reducing their acculturative stress.

*Keywords : Music therapy, Music psychotherapy,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Acculturative stress*

---

\* Dong-Chun Communities Rehabilitation Center Music Therapist

##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심리치료 적용 연구

정현정\*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새터민 아동들에게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새터민 아동 4명을 대상으로 하여 약 40분씩 총 14회기에 걸쳐 개인 세션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에 기초하여 14회 활동의 사전과 사후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여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사전검사 평균 32.75점에서 사후검사 평균 23점으로 9.75점 감소하였으며, 각 회기별 주제에 대한 대상자들의 언어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언어적 자기표현에 있어서 부정적 사고가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새터민 아동에게 음악을 통한 일관된 지지감을 제공하며 긍정적 자아 지각을 통해 내적 자원을 강화하도록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음악치료, 음악심리치료, 새터민 아동, 문화적응 스트레스

---

\* 노원통합지원센터(동천공동가정지원센터) 음악치료사 (hjungiee@hanmail.net)

## I. 서 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한으로 입국하는 새터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6월 기준 국내입국 새터민은 총 13,993명에 이르고 있다(통일부, 2008). 또한 단독입국보다는 가족단위의 입국 비율이 30~50%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입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현재 남한에 입국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수는 약 2100여 명이며(통일부, 2008), 99년 이후 매년 남한 입국 탈북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정병호 외, 2003).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사회 적응과 정착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새터민 아동은 어린 나이에 탈출과 도피, 은신, 방황을 경험하며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입게 된다. 남한 입국 후에도 상이한 남북한사회의 문화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며 남한의 경쟁적 교육체제 속에서 받는 압력과 학교 부적응, 갑작스러운 대중문화매체에의 노출에 따른 문화적 결핍감과 열등감,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이들이 동시에 감당해 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정진웅, 2005). 무엇보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수반되는 정체감의 혼란과 이질적인 문화적응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새터민 아동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비롯하여 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새터민 아동은 외로움, 불안, 소외감을 경험하고 소속감 결여를 나타낸다(장창호, 2000).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Berry(2002)의 연구결과와 같이 적응상의 어려움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새터민 아동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즉,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터민 아동의 적응 및 부적응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목혜연, 2007). 또한 이를 경험하는 새터민 아동들에게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심각한 신체 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Williams & Berry, 1991).

특히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은 그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적기에 해결되지 않은 채 성장하게 되면 청소년 시기인 중·고등학교시기에 더 큰 문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박모란, 2002). 무엇보다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학업 부진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 등은 일탈행위로 이어져(김진섭, 2004)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새터민 아동의 남한사회의 적응과 통합은 이들이 앞으로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각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다가올 미래 사회의 화합과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근래 들어 성인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응 현황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증가하면서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새터민 아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다룬 연구는 미술치료를 매체로 사용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새터민 아동의 심리적인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들에 대한 접근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새터민 아동이 남한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해나가는 것을 돕기 위한 심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음악은 평소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슬픔, 기쁨, 공상, 놀람 등의 모든 감정적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Radocy & Boyle, 1997), 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판단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다는 치료적 이점을 가진다. 새터민 아동의 대부분이 불안 정도가 높고 심리적 긴장 속에서의 감정 혼란과 함께 적절한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나타낸다(최명선 외, 2006)는 점을 고려할 때 음악은 감정표현에 있어서 새터민 아동에게 자유롭고 비위협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은 자기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일관된 지지를 경험하게 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고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힘을 지닌다(Borcson, 2004). 이러한 음악을 심리적 도구로 활용하는 음악심리치료는 주로 내적 갈등 해결, 정서적 안정, 자기표현, 감정과 태도의 변화, 대인관계적 문제 해결, 감정적 상처의 치료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Bruscia, 1987).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음악심리치료는 음악 안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긍심과 자아실현 경험을 갖도록 유도해 줄 수 있으며, 생리적으로도 긴장 이완을 통하여 몸의 경직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성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의 중재를 위해 음악심리치료 환경에서 치료사로부터의 지지와 음악을 통한 자기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새터민 아동들에게 긍정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심리치료 활동 안에서 새터민 아동들은 타인과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협동심과 책임감, 내적 욕구 통제력 등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Gaston, 1968). 즉, 음악을 하는 동안 새터민 아동들은 소속감과 친밀감을 경험하며(김미성, 2001), 자기와 타인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됨으로써 자기 가치감을 가지게 된다. 이는 새터민 아동들의 내적 역량 즉, 개인적 보호 요인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새터민 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특유의 적개심 및 공격성에 대하여

음악은 내재된 분노, 좌절, 그리고 과격한 정서들을 표출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정현주, 2005).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음악심리치료는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음악의 치료적 접근은 많은 대상에게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으나, 새터민 아동에 대한 음악치료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새터민 아동이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음악치료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새터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가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과 또래 문화 및 놀이 문화에서 극심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새터민 아동에게 음악심리치료는 또 다른 문화적 접근으로서 보다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 1. 새터민 아동

2008년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새터민 중 ‘아동 및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새터민 아동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발달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아동기 고유의 과제를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 성인과 크게 다른 문제를 가지게 된다(정병호, 2001). 특히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은 문화적 영향력이 큰 ‘학교’에 적응해야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 중에서 가장 빨리 현지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받는다.

새터민 아동에 대해 심리·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심리적 특성으로 남한 문화의 적응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정, 특히 극심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상만, 1999). 새터민 아동들 중 다수가 북한에서 겪은 기아의 고난과 가족의 죽음 또는 생이별의 경험, 탈북 과정과 제 3국 체류기간에 겪은 공포 등으로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부모들이 먼저 탈북하고 자녀들은 고국의 친인척에 일정기간 맡겨져 있다가 나중에 부모가 다시 찾으러 오거나 중국에서 합류하는 경우에 아동들이 유아기 때 부모와 안정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애착에 있어서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격리 불안과 심리적인 공포는 아동들에게 심리·정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주 나타난다. 김진섭(2004)은 새터민 아동들이 겪는 불안에 대해 북한에서 겪은 기아의 고난과 가족의 죽음 및 이별, 중국 체류 기간과 탈북·입국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공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낯선 남한 문화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걱정 즉,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새터민 아동들은 과거 힘든 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disorder, PTSD)’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외에도 남한 입국 후 남북한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혼란과 갈등, 그리고 고립된 생활경험은 새터민 아동의 자아통제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진경 외, 2006). 이들은 가정 내에서도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세대 차이에 따른 문화적 괴리감, 공감대 부재, 경직된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박미석, 이종남, 1999).

다음으로 새터민 아동들의 사회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새터민 아동은 삶의 배경이었던 가정,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이금순, 송정호, 1997). 특히 새터민 아동은 학교 교우관계에 있어서 친구관계와 성적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데, 장창호(2001)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 학교에 편입할 당시 남한의 학생들보다 평균 1~2세 많은 나이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적 적응, 사회적 관계망,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새터민 아동들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새터민 아동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동기 시기인 동시에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운 경험과 남한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새터민 아동의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이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터민 아동의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은 다음에서 논의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Berry, 2002).

## 2. 문화적응스트레스

적응의 개념을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면 ‘한 개인이 기존의 문화에서 나와 새로운 문화로 편입되는 과정 즉, 둘 이상의 문화가 서로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Gibson(2001)은 문화적응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갖는 사람들이 접촉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화의 변화와 적응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문화적응이란 두 문화 간의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긴 변화로서 정치, 경제, 기술, 언어, 종교, 사회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심리내적인 변화를 말한다.

문화적응의 대표적 연구자인 Berry(2002)는 문화적응을 문화적(집단) 차원과 심리적(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의 태도나 행동, 특성의 변화를 심리적 문화적응이라 명명하고 심리적 차원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현상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행동적 변화로서 이는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 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두

번째 현상은 흔히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적응 능력을 넘어서는 내적, 외적인 요구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에 그 바탕을 두고, 여기에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확장시킨 심리, 문화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개인은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에 이르러 불안이나 우울, 소외감, 신체 증상, 정체감 혼란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Williams & Berry, 1991).

본 연구에서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즉, 적대감, 차별감, 소속감에 대해 연구자가 내린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대감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감정과 행동을 표현을 의미하는데, 적대감이 높은 사람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처한 위협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새로운 상황을 왜곡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을 위한 자원과 기술로 사용하기보다 방어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이원희,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대감을 치료 내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사의 활동에 대한 소개 및 설명과 활동 수행에 대한 비호의적이고 비협조적인 반응으로 정의한다. 음악심리치료 중재에 있어서 새터민 아동은 치료사의 지시를 비롯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내면화한 뒤에 모방하여 수행하거나, 창작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모방하려는 행동은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익숙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려는 적응력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차별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느낌으로 지각된 차별감에 대해 불공정한 대우와 개인적인 거절감을 하위요인으로 들 수 있다(Crosby, 1982). 즉, 남한 사회 내 새터민이라는 이질적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지각과 거절감에서 비롯되는 열등감과 부정적 자아인식을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별감을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타인과의 비교 및 부정적 자기인식의 표현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음악심리치료 중재로 악기연주 및 노래만들기를 통해 자기인식 및 표현을 유도하며 이에 대한 음악 및 치료사로부터의 수용 및 지지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소속감은 어떤 집단에 속해있다는 느낌으로 인간은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졌으며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그것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김정희, 이장호, 1995). Maslow(1965)는 소속감을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이며 타인에 의해 자신이 인식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였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특정 집단의 일원이며 다른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는 느낌을 받게 될 때 안정감과 행복감을 갖게 된다. 즉, 소속감은 개인이 일반적으로 타인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데서 얻는 만족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소속감을 위한 음악심리치료 중재는 치료사와 새터민 아동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모방을 통한 악기 연주 경험을 제공하며 새터민 아동이 직접 악기를 선택하게 하거나 선호하는 곡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한다. 음악 활동 안에서 치료사는 아동에게 즉각적인 지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소속감의 증가와 더불어 자신의 욕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응력 있는 아동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위기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보호 요인이라는 측면(Hernandez, 1993)에서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음악심리치료

음악심리치료란 심리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음악 및 음악활동을 통해 개인과 집단을 구성하여 음악 경험을 매개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것을 뜻한다(Bruscia, 1987). 이 때 내담자와 치료사 간의 관계형성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음악심리치료에서는 치료적 변화과정 자체에서 이러한 내담자와 치료사 간의 관계형성을 촉발시키고자 음악을 사용한다. 또한 심리치료에서는 환경적 지지보다 개인적 지지를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자기지지를 중요시하는데 음악은 정서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주어 긴장과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감정표현을 하게 하는 지지적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Bruscia, 1998). 즉, 음악심리치료는 자신의 억압된 내면과 현실을 인식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개인의 심리적 성장을 이루는 것과 감정 표출 및 자기표현을 통해 정서적 외상을 치유하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 아동에게 지지적 활동 중심의 음악적 접근에서부터 현재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들을 다루는, 보다 심층적인 접근에 이르기까지 노래심리치료와 즉흥 연주를 중심으로 음악의 심리 치료적 적용을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 1) 노래 심리치료

노래 심리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노래를 치료의 주 자원으로 하여 내담자가 자신과 환경, 그리고 삶에 대한 시각과 태도에 대해 통찰하게 해주며 자신의 문제를 노래 안에서 간접적으로 다루면서 내재된 심리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기회를 제공한다(정현주, 2005). 특히, 노래는 인지적인 언어와 감정적인 음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좀 더 쉽게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언어만을 사용하는 치료적 접근

이 대상자에게 자칫 위협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노래와 같이 언어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위협적이지 않은 음악치료적 접근은 새터민 아동의 불안과 과도한 자기방어를 감소시켜 치료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래 부르기과 노래 대화하기, 노래 만들기를 활용한 음악치료적 접근은 자신의 내면의 이슈들을 직접 언어로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새터민 아동에게 삶의 많은 주제들과 접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치료적 접근에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 심리치료의 다양한 기법들 중 노래 부르기과 노래 대화하기, 노래 만들기를 중심으로 새터민 아동들의 심리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래를 통한 접근은 통찰의 경험을 제공하여 과거 및 현재의 심리적 갈등을 다루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이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즉흥 연주

음악치료에서 임상적 즉흥연주는 자발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내고 즉각적으로 소리의 형태, 멜로디, 리듬 등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즉, 치료적 목적에 따라 음악과 그 요소를 음성과 악기를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Apel & Daniel, 1969). 또한 즉흥연주는 내담자 자신의 내면적 이슈들을 치료사와 함께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제를 선택하여 연주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표현적 즉흥연주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탐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주를 이용한 음악적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료사와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정현주, 2002).

특히, 치료사와 내담자의 상호관계적 상황에서 함께 즉흥 연주를 하는 동안 내담자는 치료사의 음악적, 감정적 지지를 경험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데 따르는 책임감을 공유하게 된다. 이 때 내담자는 치료사와 음악적으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Bruscia, 1987). 즉, 즉흥연주를 통한 음악적 교류는 내담자의 사회적 학습을 유도하게 되는데 음악적 행위에 수반된 질서와 책임은 상호교류나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고 사회적응을 위한 유용한 행동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즉흥 연주는 내담자와 치료사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내적 가치들을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Boxil, 1984).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음악을 만드는 즉흥 연주 경험은 음악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낳게 된다. 즉, 두려움을 격감시키고 비사회적인 태도를 저지시키며 자아를 발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문영애, 2002). 특히, 내담자의 음악적 소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개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비언어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터민 아동이 즉흥 연주를 통해 자기를 통찰하고 내재된 감정들을 표출하며 감정적, 음악적 지지감을 경험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내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율악기

와 리듬악기를 모두 활용하는 즉흥연주를 통해 새터민 아동에게 보다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즉흥연주를 통해 치료사와의 음악적 교류를 경험하는 것은 새터민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새터민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인 H 공부방에 소속된 아동 및 청소년들 중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사회복지사가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여 추천한 아동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은 13세 여아 2명과 10세 남아 1명, 9세 여아 1명이다. 이들의 입국 전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약 2년에서 8년이며,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은 7개월에서 4년 5개월로 다양하다.

#### 1) 대상자 A

대상자 A는 13세 여아로, 부모와 함께 남한에 입국하였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현재 아버지와 새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남한에 거주한 지 약 3년이 지났으며 탈북 후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약 2년이다. 담당 복지사의 소견에 따르면 20대 중반의 조선족 여성으로 아동 양육기술의 부족함을 보이는 새어머니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가정에서는 매우 소극적이나 기관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다른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였다.

#### 2) 대상자 B

대상자 B는 13세 여아로, 어머니와 새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남한에 거주한 지 약 4년이 지났으며 탈북 후 중국 및 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약 2년 6개월이다. 어머니의 엄격한 양육방식에 따라 대상자 B는 집안일과 3세의 남동생을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담당 복지사의 소견으로는 또래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대상자 B는 복지사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위기적 상황에서 우는 행동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 3) 대상자 C

대상자 C는 10세 남아로, 어머니와 새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대상자 C는 약 8년간 중국에서 체류하였으며 어머니는 약 3년간 함께 있다가 남한에 먼저 입국하여 2007년 말, 대상자 C를 남한에 입국시켰다. 담당 복지사의 소견에 따르면 대상자 C는 어머니의 잦은 체벌을 포함한 엄격한 양육방식과 과도한 기대 및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기관 내에서 몇몇 사람과 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등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정 인물에 한해 차별적으로 관계를 맺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 4) 대상자 D

대상자 D는 9세 여아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대상자 D는 남한에 거주한 지 약 7개월이 되었으며 약 7년간 중국에서 체류하였다. 대상자 D는 매우 내성적이나 때때로 격한 감정 반응을 보여 부모님이 H 공부방을 통해 음악치료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대상자 D의 어머니는 대상자 D가 내성적인 성격의 외동딸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나 일부러 시간을 내서 대상자 D와 함께 나들이를 하거나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하려할 때에도 일관되게 “재미없다”고 말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 및 담임선생님의 지시에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다소 격한 감정으로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어 걱정이 많았다고 호소하였다.

## 2. 측정도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Sandhu와 Asrabai(1994)가 개발하여 사용한 ‘Acculturative Str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번역한 이승중(1996)의 문화이입과정스트레스 척도를 이소래(1997)가 수정·보완한 것을 참고하여 새터민 청소년에게 맞게 재구성한 김종국(2007)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적대감, 차별감, 소속감의 3가지 하위 요인에 대해 각각 6, 3, 2문항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속감은 역점수로 채점한다. Cronbach  $\alpha$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적대감 .81, 차별감 .72, 소속감 .67로 나타났다.

## 3.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하였다. 또한 새터민 아동이 서로 다른 배경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룹 세션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그룹원을 의식하여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에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세션으로 구성하여 안전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대상자 선정과 검사지 측정기간 및 분석을 포함하여 2008년 8월 10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사전검사는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 전에 개별 면담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주 2회 40분씩, 8주에 걸쳐 총 14회기의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별 세션으로 진행하였다.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결 직후에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음악심리치료 세션은 매 회기마다 인사노래로 시작하였으며 각 회기 별 목표에 따라 구성된 활동을 실시하였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대상자의 소감을 나누었으며 마침 노래로 마무리하였다.

#### 4. 연구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종결한 후에 실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검사를 통해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대상자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와 관련하여 단계별 대상자의 음악적 반응과 언어적 반응의 변화를 내용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따라 적대감, 차별감, 소속감으로 항목(item)을 구성하고 전 회기의 음악치료 세션에 대한 비디오 녹화 및 오디오 녹음을 통해 수

〈표 1〉 내용분석의 항목 및 내용

항 목	내용(조작적 정의)
적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수행에 대한 회피 또는 거부를 통한 비호의적이고 비협조적인 반응(방어적 적대감)</li> <li>• 적대감과 관련하여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의 사용(공격적 적대감)</li> <li>•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li> </ul>
차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타인과의 비교</li> <li>• 부정적 자기 인식의 표현</li> </ul>
소속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li> <li>• 타인과의 의견 교류를 통한 협력</li> <li>• 유사성을 통한 친숙함의 표현</li> </ul>

집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대상자들의 언어반응을 범주화하였다. 그 내용은 각 항목에 따라 조각적 정의로 제시하였고(<표 1> 참조), 이와 관련한 음악적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다. 질적 분석의 주관적인 견해와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음악치료 전공생 2인과 사회복지사 1인이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내용분석에 참여하였으며( $R = .73$ ), 단계별로 회기 녹화 내용을 함께 보면서 협의의 한 후 평가하였다.

## 5. 프로그램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총 14회기의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 단계(1~4회기)와 전개 단계(5~12회기), 종결 단계(13~14회기)의 총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도입 단계(1~4회기)는 음악치료 환경에의 적응과 치료사와 대상자 간의 친밀감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대상자들에게 음악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노래를 선곡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간단한 가사 바꾸기 등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며 다양한 악기 소리 탐색과 간단한 리듬 모방 및 창작 경험을 통해 악기 및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여 이후 세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개 단계(5~12회기)에서 5~8회기는 자기 자신의 탐색 및 통찰을 바탕으로 심리내적으로 억압된 감정을 표출, 해소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다양한 심리 및 정서의 이슈들을 탐색하고 주제가 있는 즉흥연주를 통하여 적대감, 차별감 등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였다. 9~11회기에서는 긍정적 자아인식과 함께 자기 및 환경을 수용하여 적응력 향상과 관련한 개인적 보호요인을 강화하도록 한다. 12회기는 외적 지지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소속감을 확인하고 즉흥연주으로써 이를 강화하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표정 카드, 그림 그리기, 이야기 창작과 같은 비음악적 매체를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여 회기별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아동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종결 단계(13~14회기)는 이전 단계들을 통해 재인식된 자기를 수용하고 음악적 활동 내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여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의 태도로 적응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척도 검사 결과

#####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사전·사후 점수결과

본 연구에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4명의 대상자에게 실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사전·사후 점수결과와 비교검정은 <표 2>와 같다.

<표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사전·사후 점수결과와 비교검정

	사전	사후	M		SD		Z	p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대상자A	30	24						
대상자B	27	18						
대상자C	41	27	32.75	23.00	6.02	3.74	-1.826	.068
대상자D	33	23						

$p < .1$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들의 사전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를 살펴 보면 대상자 C가 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대상자 A가 30점, 대상자 B가 27점, 대상자 D가 33점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종결한 후 실시한 사후검사와 사전검사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모두 감소하였다. 대상자 C는 14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여 27점을 기록하였고 대상자 A는 6점 감소한 24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B는 9점 감소한 18점이었다. 대상자 D는 10점 감소한 23점으로 나타났다.

#####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점수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세 개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 각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점수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 후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점수 변화 중 적대감 요인에서 보인 변화를 살펴보면 대상자 A는 사전 점수 15점에서 2점 감소한 13점을 기록하였고 대상자 B는 사전 점수 12점에서 3점 감소한 9점을 기록하였다. 대상자 C의 적대감 요인에 의한 사전 점수는 23점을 기록하였고 사후 검사를 통해 8점 감소한 15점을 기록

〈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점수결과

하위요인	대상자 A		대상자 B		대상자 C		대상자 D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적대감	15	13	12	9	23	15	17	10
차별감	12	7	10	6	11	10	10	7
소속감	3	4	5	3	7	2	6	6

하여 대상자들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상자 D는 사전 점수 17점에서 7점 감소하여 10점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 후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점수 변화 중 차별감 요인에서 보인 변화를 살펴보면 대상자 A는 사전 점수 12점에서 5점 감소한 7점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B는 차별감 요인에 의한 사전 점수는 10점으로 중재 후 4점 감소한 6점을 기록하였으며 대상자 C의 차별감 요인에 의한 사전 점수는 11점에서 1점 감소한 10점을 기록하였다. 대상자 D는 사전 점수 10점에서 3점 감소한 7점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 후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점수 변화 중 소속감 요인에서 보인 변화를 살펴보면 대상자 A는 사전 점수 3점에서 오히려 1점 증가한 4점을 사후 검사에서 나타내었다. 대상자 B는 사전 점수 5점에서 2점 감소한 3점을 기록하였다. 대상자 C는 사전 점수 7점에서 5점 감소하여 2점을 기록하였다. 대상자 D의 소속감 요인에 의한 점수는 사전과 사후 점수가 6점으로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점수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적대감 요인은 평균 점수가 사전 점수 16.75점에서 11.75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차별감 요인의 평균 점수는 사전 점수 10.75점에서 7.50점, 소속감 요인의 평균 점수는 사전 점수 5.25점에서 3.75점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유의 수준은  $p < .1$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적대감 요인에서 유의수준은 유의확률 .068로, 차별감 요인에서 유의수준은 유의확률 .068로 중재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감 요인에 의한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확률 .2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 2. 사례별 내용분석

본 연구에서는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음악치료 환경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적대감, 차별감, 소속감과 관련하여 대상자들의 언어표현을 통해 나타난 자신을 표현하는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한 음악적 반응을 통해 단계별 변화를 알아보았다.

1) 대상자 A

〈표 4〉 대상자 A의 언어적·음악적 반응 내용분석: 도입(1) - 전개(2) - 종결(3)단계

단계	문화적응 스트레스	내용	해석	
	적대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는 진짜 싫은데...</li> <li>•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해요.</li> <li>•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해요.</li> <li>• 밖에 사람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노래는...(하지 말아요).</li> <li>•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 활동 수행에 대한 회피 및 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부르기에 대해 자신 없는 태도를 취하며 반복적인 거부를 통해 방어적 적대감을 드러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개를 숙인 채 매우 작은 목소리로 인사노래의 가사를 “선생님”, “노래하며” 등으로 부분적으로 노래한다.</li> <li>•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읽는 듯한 어조로 노래하며 음정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li> </ul>	
도입	차별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는 필로 했어요? ⇒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타인과의 비교</li> <li>• 선생님이 지금 지어서 친 거예요? 전 피아노 되게 못 쳐요. ⇒ 부정적 자기 인식의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로 진행되는 다른 대상자의 악기 선택과 비교하며 경계심을 드러냄.</li> <li>• 치료사와 비교하여 열등감을 표현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상대방에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매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li> </ul>	
	소속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절도 만들게요.</li> <li>• 이번엔 선생님 가사로 만들어요. ⇒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li> <li>• 어,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 유사성을 통한 친숙함의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와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감을 표현하며 활동에 대해 제안을 하거나 노래 가사를 추가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만들기 활동에서 “오늘은 즐거운 음악 하는 날, 신나게 불러봐요, ○○가 했어요. 참 잘했어요”라고 가사를 작성하였다.</li> </ul>	
전개	적대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 원래 ○○를 싫어해요.</li> <li>• 부모님이 무서워요.</li> <li>•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애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피함을 토로하였으나 활동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li> </ul>

		<p>⇒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 시끄럽네.</li> <li>• 모두 싸우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모두 싸웠어요.</li> <li>• 저 어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빨리 집을 나가던지 해야지.</li> <li>• ○○가 아픈 거니깐 제가 알 바 아니에요.</li> <li>•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 고조되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연주했어요. 이건(빨간색 터치벨) 피예요. 죽었어요.</li> </ul> <p>⇒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의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시, 이건 창피해. 몇 번을 불러도 창피해요.</li> <li>• 벌써 시간이 이러네요. 선생님 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li> <li>• 더 쓸 사람이 없어요. 나머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적을게요.</li> </ul> <p>⇒ 활동 수행에 대한 거부 감소</p>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난 표정’을 주제로 한 즉흥연주에서 크기가 가장 큰 드럼을 선택하여 일관된 박으로 빠르고 크게 연주하였다. 심벌과 드럼을 번갈아 1번씩 연주하다가 심벌을 손으로 잡아 울림을 멈춘 후 마쳤다.</li> </ul> 	<p>참여도가 증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싸움’, ‘죽음’, ‘피’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적 적대감을 드러냄.</li> <li>• ‘시끄럽다’고 표현한 악기를 선택하여 크고 빠르게 연주함으로써 공격적 적대감을 표출함.</li> </ul>
차별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는 너무 똑같은 옷을 매일 입어요. 전 자주 갈아입는데.</li> <li>• 제가 ○○보다 10cm가 커요.</li> <li>• 제가 연주하면 이상하네요.</li> </ul> <p>⇒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li> </ul> <p>⇒ 부정적 자기 인식의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렵다. 바뀌도 되요?</li> <li>• 아, 제가 생각해도 잘 지은 것 같아요.</li> <li>• 저 아는 노래는 많아요.</li> </ul> <p>⇒ 긍정적 자기 인식으로의 노력 및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설명함.</li> <li>• 열등감으로 인한 위축된 자아상을 악기 연주로 표현함.</li> <li>• 역할 수행에 있어 치료사와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였으나 수정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의 모습’을 주제로 한 즉흥연주 시 카바사를 선택하여 손가락 끝으로 문지르면서 매우 작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li> </ul>	
소속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걸로 연주할게요.</li> <li>• 이 악기가 마음에 드네요.</li> <li>•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저도 피아노 쳐보고 싶어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표현하며 활동 수행에 보다 능동적으</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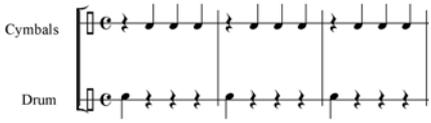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엔 아주 작게 연주할 거예요.</li> <li>• 한 번만 연습할게요. 잘 해야 해요.</li> <li>• 선생님, 노래 크게 해주세요.</li> <li>⇒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나타냄.</li> <li>• 반복적인 연습을 요구하며 성공적인 연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냄.</li> <li>• 활동 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욕구 및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표정을 주제로 즉흥 연주를 할 때 악기를 바꿔가며 연주하였다.</li> <li>• 치료사와 동시에 연주를 시작하고 마쳤다.</li> <li>• 연주 도중 실수를 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완벽하게 연주를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li> </ul>	
적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낌이 좋아요.</li> <li>• 또 다른 기회가 필요한지도 몰라요.</li> <li>• 괜찮다고... 잘 될 거래요.</li> <li>⇒ 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li> <li>• 가사 내용이 읽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한테 이거 들려줘야지.</li> <li>⇒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가사 전체를 모두 부르는 등 활동에 대한 회피 및 방어가 감소함.</li> <li>• 긍정적 노래 가사의 수용을 통해 부정적 자기 인식에서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을 나타냄.</li> <li>• 적대적이었던 대상에게 노래를 들려주려는 모습을 통해 친화적 의지를 나타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음정은 부정확하나, 비교적 큰 목소리로 노래 가사 전체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li> </ul>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반응</li> <li>• 저 원래 스트레스는 많았어요. 근데 변한 거 있어요. 예전보다 정말 많이 웃어요.</li> <li>⇒ 긍정적 자기 인식으로의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긍정적 자기인식을 나타냄.</li> </ul>
차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 반응</li> <li>• 차별감과 관련한 음악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소속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반응</li> <li>• 번갈아가면서 읽어봐요.</li> <li>• 이 단어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세요.</li> <li>⇒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li> <li>• 선생님은 제가 뭘 연주했으면 좋겠어요?</li> <li>⇒ 타인과의 의견 교류를 통한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에 대해 먼저 제안하는 모습을 통해 능동적인 참여를 나타냄.</li> <li>• 타인의 의견을 묻고, 이를 자신의 수행에 반영하거나, 치료사의 음악적 변화를 모방하여 연주하는 것을 통해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모습을 나타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흥연주 시 악기를 바꿀 때마다 치료사를 쳐다보았고, 치료사가 트레몰로로 빠르게 연주하자 따라서 심벌을 빠르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li> </ul>	

2) 대상자 B

〈표 5〉 대상자 B의 언어적·음악적 반응 내용분석: 도입(1) - 전개(2) - 종결(3)단계

단계	문화적응 스트레스	내용	해석
도입	적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 이런 거 약한데...</li> <li>• 이상해요.</li> <li>• 이상하죠? 전 꿈이 이게 아니어서...</li> <li>• 선생님, 저 이런 거 자신 없어요. 일상생활에 관한 건 더더욱.</li> <li>⇒ 활동 수행에 대한 회피 및 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수행에 대해 자신 없는 태도를 취하며 낮은 활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어적 적대감을 나타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을 알고 있는 악기(마라카스, 캐스터네츠)를 스스로 집어서 여러 번 연주하는 것에 비하여 처음 보는 악기(핸드드럼, 에그 셰이커)에 대해 치료사를 쳐다보며 작게 1번 연주한 후 악기를 내려놓았다.</li> </ul>	
도입	차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은 무슨 악기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이거 다 있어요. 집에 악기 많아요.</li> <li>⇒ 타인과의 비교</li> <li>• 아, 저 노래 못해요. 음치예요.</li> <li>• 아, 저 잘 못하는데.</li> <li>⇒ 부정적 자기 인식의 표현</li> <li>• 슬펐어요. 엄마가 없었을 때.</li> <li>⇒ 차별과 관련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와 악기를 비교하며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나타냄.</li> <li>• 치료사와 함께 연주할 때 치료사의 반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의식하여 모방하려 함.</li> <li>• 과거에 경험하였던 차별적 상황과 관련한 감정을 회상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한 악기를 연주하는 도중 치료사와 피아노를 쳐다보며 치료사의 리듬을 모방하여 연주하였다. (♪♪♪♪)</li> </ul>	
전개	소속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절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쓴 걸로도 해요.</li> <li>• 잠깐만요. 연습 좀 하구요.</li> <li>• 연습시간을 주세요.</li> <li>⇒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에게 자발적으로 응용활동을 제안하거나 악기 이름을 외우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를 스스로 정한 연주 순서에 따라 배열한 후 순서에 맞춰 연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li> <li>• 악기 이름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연주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 배열을 조정하거나 연습을 통해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어내려는 적극성을 나타냄.</li> </ul>
전개	적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요.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요. 그냥 싫어요. 아무튼 이상해요.</li> <li>⇒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심’, ‘싫음’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공격적 적대심을 표현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악기는 복수심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까칠한 거 같아요.</li> <li>⇒ 공격적인 언어의 사용</li> <li>• 마음에 들어요.</li> <li>• 제가 단소는 못 불어도 리코더는 잘해요. 불어볼까요?</li> <li>• 장점, 이런 생각은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분?</li> <li>⇒ 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조네이트 벨을 연주한 후 울림이 심하다고 말하며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는 반응을 보였으나 치료사의 제안에 따라 연주를 수행함.</li> <li>• 활동 참여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며 협조적인 반응이 증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조네이트 벨을 말렛으로 연주한 후 귀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으나 즉흥연주 시 일정한 박으로 천천히 세음(C, E, G)을 번갈아가며 연주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의 제안에 따라 마침노래를 리코더로 연주할 때 호흡을 조절하여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하였다.</li> </ul>		
차별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치란 소리 얼마나 들었는데요. 많이 들었어요.</li> <li>• 그림 빼고 저 잘하는 게 없어요.</li> <li>• 전 인정이 많아요. 근데 좀 강한 모습을 원해요. 싸울 때도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어요.</li> <li>⇒ 부정적 자기 인식의 표현 및 변화에 대한 욕구</li> <li>• 전 선생님처럼 아름답게는 연주하지 못해요.</li> <li>⇒ 타인과의 비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으로부터 누적된 부정 강화로 인해 부정적 자기 인식을 나타냄.</li> <li>• 현재의 자기상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며 강한 자기상에 대한 소망을 나타냄.</li> <li>• 치료사와 자신의 연주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드러냄.</li> <li>• 학교에서의 모습을 기관에서의 활발한 모습과 대비하여 작고 느리게 연주하여 위축된 자아상을 표현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방에서의 모습’을 주제로 한 즉흥연주 시 에그셰이커를 빠르게 지속적으로 흔들며 연주하였던 반면, ‘학교에서의 모습’을 주제로 한 즉흥연주 시 비팔로 드럼을 천천히 일정한 박으로 작게 연주하다가 카바사 역시 작고 느리게 연주하였다.</li> </ul>	
소속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 이거 연주할래요.</li> <li>⇒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참여</li> <li>• 선생님도 저에 맞춰서 발랄하게 연주하셨네요.</li> <li>⇒ 유사성을 통한 친숙함의 표현</li> <li>• 제 연주 듣고 어떤 느낌이 나오?</li> <li>• 선생님은 꿈이 뭔데요?</li> <li>⇒ 타인과의 의견 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로부터의 지지 경험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며 주도적인 참여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흥연주 시 레조네이트 벨 3개를 말렛으로 좌우로 굽</li> </ul>	

	반응	어 연주하였고, 이를 치료사가 글리산도로 모방하여 피아노를 치자 쳐다본 후 반복해서 굽어서 연주하였다.	
적대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것 같아요.</li> <li>• 그냥 좋았어요. 음악하면 재밌어요.</li> <li>• 계획을 짠 건 아닌데, 심벌이 마음에 들어서 선생님 연주에 맞춰서 해봤어요.</li> <li>⇒ 활동 수행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며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반응이 증가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대감과 관련한 음악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종결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감과 관련한 언어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감과 관련한 음악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소속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해서 연주해봐요.</li> <li>• 자꾸 하니깐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li> <li>⇒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수행에 있어서 치료사의 지시가 있기 전에 스스로 제안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벌을 일정한 리듬으로 연주하다가 치료사가 저음부에서 왼손으로 첫 박을 연주하자 북을 들고 첫 박마다 1번씩 연주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에 맞춰 다르게 연주하며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보임.</li> </ul>

### 3) 대상자 C

〈표 6〉 대상자 C의 언어적·음악적 반응 내용분석: 도입(1) - 전개(2) - 종결(3)단계

단계	문화적응 스트레스	내용	해석
도입	적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뭐라고요?</li> <li>• 잘 못해요.</li> <li>• 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li> <li>• 선생님이 한 번 해보세요. 무서워요.</li> <li>⇒ 활동 수행에 대한 회피 및 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소 산만한 태도로 치료사의 질문에 되묻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여 방어적 적대감을 나타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가 반주 리듬을 하위분할해서 연주하자 이를 모방하여 북을 같은 리듬으로 연주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대로 연주하고 싶다는 표현을 통해 공격적 적대감을 나타냄.</li> <li>• 반면, 음악적 의사소통</li> </ul>



에 있어서 치료사의 음악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호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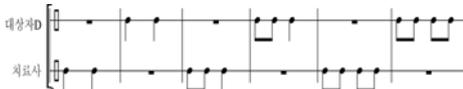
• 노래의 음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매우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차별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는 이거 왜 해요? 뭐 했어요?</li> <li>⇒ 타인과의 비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로 진행되는 다른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하며 자신의 활동 수행과 비교하려는 반응을 나타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감과 관련한 음악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소속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악기 있어요? 다음 시간엔 그거(캐스터네츠) 할래요.</li> <li>• 더 썩썩하게 쳐주세요. 더 크게요.</li> <li>• 저 이거(북) 빌려주세요. 이거 칠래요.</li> <li>⇒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 및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 및 연주 방법에 대해 치료사에게 요구를 하며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다소 명령조를 사용하여 지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를 바꾸는 활동에서 자신의 연주 외에 치료사의 연주에 대한 내용을 노래로 먼저 부르기 시작하였다.(선생님이 피아노 쳐요...)</li> </ul>	
적대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거 무섭죠? 친구들이 이거 보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li> <li>• 선생님, 보지 마세요.</li> <li>• 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li> <li>• 이거 다음 시간에 해요.</li> <li>• 집은 빼요. 집에 대해선 안 할래요.</li> <li>⇒ 활동 수행에 대한 회피 및 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연주 수행에 대해 보지 말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방어적 태도를 나타냄.</li> <li>•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싫다’ 또는 ‘안한다’와 같이 분명한 거부를 나타냄.</li> </ul>
전개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벌을 한 번 연주한 후 귀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으나 치료사가 작게 연주하는 것을 듣고 따라서 말렛으로 작게 연주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주가 후에는 손으로 심벌을 잡아 울림을 멈췄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및 거부 반응을 나타내 방어적 적대감을 드러냄.</li> </ul>
차별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은 뭐라고 할 거 같아요?</li> <li>⇒ 타인과의 비교</li> <li>• 제가 좋아하는 악기만 다 가지고 갈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선호악기만을 연주할 것을 고집하였고 연주 수행 시 책상 밑의 공간에서 연주하며 방어적인 태도로 악기를 독점하는 모습을 나타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호하는 악기인 북, 클래터필터, 카바사를 가지고 책상 밑으로 내려가 세 악기를 번갈아가며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주가 끝나자 다시 의자에 앉았다.</li> <li>• 대상화하여 이름표를 붙인 터치벨을 연주할 때 모든 벨들</li> </ul>	

		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골고루 연주하되, 자신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터치벨을 가장 많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 이거 빌려주시면 안 돼요?</li> <li>• 두 개(혼)를 한꺼번에 붙어볼게요.</li> </ul> ⇒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악기를 요구하거나, 악기를 빌려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소유에 대한 욕구를 나타냄.</li> </ul>
소속감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으로 즉흥연주 시 비교적 장시간(약 7분) 동안 연주를 지속하였으며 길게 끝먼서 크게 연주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잠깐 휴식을 가진 뒤 다시 혼을 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길게 또는 짧게 연주하는 것으로 변화를 주며 치료사와 번갈아 가며 리듬을 제시하였다.(♪ ♪♪ ♪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흥연주 시 악기탐색의 과정을 거친 후 치료사를 의식하고, 리듬의 변화를 주어 제시하며 음악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li> </ul>
적대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 가장 아끼는 노래예요.</li> <li>• 저 이거 좋아해요.</li> <li>• 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들어요.</li> <li>• 만족스러워요.</li> </ul> ⇒ 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는 곡을 긍정적인 단어의 사용과 함께 소개하며 활동에의 협조적인 참여반응을 나타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선곡한 곡에 대해 치료사와 함께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반복하였다. 특히 노래의 후렴부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르려는 모습을 보였다.</li> <li>• 치료사와 동시에 연주를 시작하고 마치는 모습을 보였다.</li> </ul>	
종결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감과 관련한 언어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감과 관련한 음악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긴 선생님이 혼자 부르세요. 전 여기 부를게요.</li> <li>• 여긴 제가 연주하고, 선생님이 여기 노래하고, 여긴...</li> <li>• 연주 제목은 '우리 함께 연주해요'로 해요.</li> </ul> ⇒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에 맞춰 연주 방법을 직접 구성하고 치료사에게 제안하는 모습을 통해 능동적인 참여를 나타냄.</li> </ul>
소속감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선곡한 노래를 치료사와 함께 부를 때 노래 리듬에 맞춰 우드블럭을 연주하였다.</li> <li>• 레조네이트 벨로 즉흥연주 시 치료사와 연주를 동시에 멈췄다가 다시 말렛으로 벨을 연주하기 시작하며 연주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음악을 이끌고 나가려함.</li> <li>• 실수 없이 완벽한 연주를 위하여 치료사에게 손짓, 눈짓으로 사인을 주며 성공적인 수행을 도우려는 모습을 나타냄.</li> </ul>

#### 4) 대상자 D

〈표 7〉 대상자 D의 언어적·음악적 반응 내용분석: 도입(1) - 전개(2) - 종결(3)단계

단계	문화적응 스트레스	내용	해석
적대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 (이름) 까먹었어요.</li> <li>⇒ 활동 수행에 대한 소극적 회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사의 말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악기 연주에 있어서 치료사의 리듬을 모방하여 연주하나 그 강도가 매우 약한 점으로 볼 때 활동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낮은 환경에 대한 위축된 정서를 표현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을 연주할 때 치료사의 리듬을 정확히 모방하였으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매우 약한 강도로 연주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사를 따라 노래를 한 소절씩 익힐 때 정확한 음정과 말할 때에 비하여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li> </ul>	
도입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아노는 칠 줄 알아요. 쉬운 거.</li> <li>선생님은 피아노 잘 쳐요.</li> <li>⇒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 인식의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사가 반주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며, 이에 치료사가 피아노를 함께 치자고 제안하였을 때 현재 배우고 있는 곡을 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며 자신의 현재 역량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아노 연주를 제안하였을 때 고음부에서 양손으로 8마디의 바이엘 곡을 외워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li> </ul>	
소속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감과 관련한 언어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발적인 발화 및 연주 보다는 주로 치료사의 지시 및 제안에 별 다른 거부 없이 따라 수행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나타냄.</li> <li>반면, 보다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 악기 배열을 조정하는 등 능동적인 준비 모습을 보임.</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기 연주 시 책상에 나란히 배열한 후 순서대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치료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사인을 주었다.</li> <li>악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연주하였다.</li> </ul>	

적대감	<p>언어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밌을 때요. TV에서 사람들이 웃긴 거 할 때...(중략)...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해요. 공부하라고 해요.</li> <li>• 친구랑 싸울 때. 받아쓰기 볼 때 애들이 지우고 다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닌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는 모습이 증가하였고, 단답형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야기함.</li> <li>• 치료사가 단조 조성을 사용하여 연주 분위기를 달리하였을 때 멈추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방어적 태도를 보였으나 곧 치료사를 따라서 점점 강하게 연주하며 공격적 적대감의 감정을 표현함.</li> </ul>
전개	<p>언어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은 피아노 잘 쳐요.</li> <li>• 선생님은 저보다 키가 커요. ⇒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 인식의 표현</li> <li>• 전... 노래 잘해요. 아, 글씨도 잘 써요. ⇒ 긍정적 자기 인식의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와 같은 악기를 연주할 경우 치료사의 음악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속적으로 의식하여 크기 및 빠르기, 리듬 등을 모방하여 연주하는 모습이 나타남.</li> <li>• 치료사와 비교하여 자신만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한 치료사의 강화에 만족감을 표현함.</li> </ul>
소속감	<p>언어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뀌요. 음. 빼죽빼죽.</li> <li>• 처음엔 화나게, 그리고 나중엔 즐겁게. ⇒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제안</li> <li>• 즐거운 표정이요. 공부를 잘할 때.</li> <li>• 선생님 소리랑 제 소리랑 달라서. 음. 재미있었어요.</li> <li>• 일부러 연주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없으니깐. ⇒ 활동과 관련한 의사표현</li> </ul> <p>음악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정 그림과 관련하여 노래를 부를 때 먼저 가사를 바꿀 것을 제안하고 화난 표정에 대해서 ‘무섭기도 하구나’라고 바뀌서 노래하였으며 우는 표정에 대해서 ‘슬프기도 하구나’라고 바뀌서 노래 부르는 자발적인 모습을 보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적 표현에 관한 자발적인 발화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속감 증가에 따라 음악적 환경을 안전하게 지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됨.</li> </ul>

적대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괜찮아요.</li> <li>• 잘 될 거라는 부분이 맘에 들어요.</li> <li>⇒ 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사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답하는 반응이 증가함.</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대감과 관련한 음악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차별감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감과 관련한 언어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감과 관련한 음악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li> </ul>	
종결	언어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 제목은... 최고.</li> <li>• 예전에 피아노로 쳤던 곡을 생각하면서 연주한 거예요.</li> <li>•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터치벨) 왜 소리가 달라요?</li> <li>⇒ 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의사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에 비하여 즉흥연주 지속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연주가 끝나자마자 먼저 연주를 하면서 든 생각 또는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가 증가함.</li> </ul>
소속감	음악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붙인 제목에 대해 즉흥연주 시 비교적 장시간(약 9분) 동안 연주를 지속하였으며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터치벨을 한 음씩 눌러 연주하다가 양 손으로 번갈아 또는 동시에 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옥타브 간격의 C음을 양 손으로 자주 연주하였다.</li> </ul>	

#### IV. 결 론

본 연구는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 2회 총 8주 동안 14회기의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H 공부방에 소속된 4명의 새터민 아동을 대상으로 총 14회기의 개별 세션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의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프로그램 종결 후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점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음악활동에서 보인 대상자의 모습을 관찰하여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한 언어적·음악적 반응의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검사 결과 대상자 4명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점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요인의 점수가 감소하였는데 적대감과 차별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소속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특히 적대감의 점수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활동 안에서 일관된 지지를 경험하게 하여 대상자들의 적대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치료사에 대한 신뢰의 증가와 함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관련한 대상자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상자C는 프로그램 초반부에서 치료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이라고 우기거나 특정 악기만을 골라서 연주하려는 모습을 통해 치료사 및 활동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크기가 큰 악기나 큰 소리가 나는 악기에 대해 “시끄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귀를 막는 등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진행단계에서 실제 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카바사, 클래티필터, 북과 같이 큰 소리로 연주하기에 용이한 악기들을 고집하였는데 크게 연주함으로써 적대감 및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 C는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다양한 악기들을 골고루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여 치료사와의 의사소통 및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 치료사 및 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하고 적대감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중 차별감 요인에서 대상자 A는 가장 큰 변화율을 보였다. 특히, 대상자 A는 4명의 대상자들 중 차별감에 대한 가장 높은 사전 점수를 나타냈는데 대상자 A가 재혼 가정의 자녀임을 고려할 때 많은 새터민 아동들이 가족의 이별 및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면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 기능이 저하되어 양부모나 한부모 가정의 새터민 아동이 혼자나 형제자매와 지내는 새터민 아동보다 차별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김종국(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초반부에서 대상자 A는 악기를 선택하거나 노래 가사를 만드는 활동을 할 때 다른 아동들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치료사에게 물으며 다른 아동들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상자 A는 상황 및 대상에 따라 상이한 감정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대처방식을 보임으로써 차별감으로 인한 분열된 자아 지각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된 자아상으로 인한 내면적인 갈등을 악기 연주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감정의 정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래 가사를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강화함으로써 프로그램 후반부에서는 더 이상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차별감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자기 수용을 통해 긍정적 사고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중 소속감 요인에서는 대상자 C가 가장 큰 변화율을 보인 반면, 대상자 D는 점수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대상자 A는 오히려 점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 D가 네 명의 아동들 중 남한에서의 적응 기간이 7개월로 가장 짧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14회기의 짧은 연구 기간으로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 A는 음악활동 안에서 ‘빨리 집을 나가야지’ 등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을 표출하였는데 이처럼 아동에게 가장 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가정으로부터 소속감 저하가 점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응 유형과 적응 기간 및 이주전의 경험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주장한 이태희(200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상자 D와 대상자 A에게서 소속감을 제외한 다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들은 점수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서 내적 자원의 강화와 긍정적지지 경험을 중심으로 음악활동 안에서의 언어적·음악적 반응을 분석하였다. 음악활동을 통해 관찰된 대상자들의 언어적 반응의 단계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입 단계에서 자신을 ‘음치’라고 표현하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가장 못 한다’ 등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어 차별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현하였으나 전개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회기별 주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이 증가하였으며 자신의 강점에 대하여 스스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회피 또는 거부를 하는 등으로 적대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나타내었으나 노래 가사 중 지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괜찮다’ 또는 ‘새롭다’ 등으로 수용하며 종결 단계에서는 긍정적 자기 인식을 통해 부정적 사고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음악활동을 통해 관찰된 음악적 반응의 단계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입 단계에서 다양한 악기에 흥미를 보인 반면, 악기 연주 지속시간이 짧고 크게 연주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막는 등의 행동을 취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악기를 직접 선택하며 회기별 주제에 따른 즉흥 연주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의 연주에 대해 제목을 붙이는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냈다. 특히, 치료사와 함께 연주하는 가운데 긍정적 지지를 경험하고, 성취감을 통해 내적 자원, 즉 개인적인 보호요인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위한 중재로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의 기초연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본 연구는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새터민 아동들의 심리치료 일환으로 음악치료의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한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4명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들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할 때 적절한 개입을 위한 통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 아동의 남한사회 적응 기간과 적응 유형, 이주전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새터민 아동의 적응 유형과 남한사회 적응 기간, 이주전의 경험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새터민 아동은 탈북과 남한 입국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니며 일반화시키기에 매우 다양한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로 세션을 진행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집단세션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이들의 사회적 기술의 향상 및 상호지지 경험을 통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새터민 아동 개개인의 경험을 고려하여 차별을 두어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 연구는 새터민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새터민 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이 아동 개인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며 부모-아동 간의 심리적 적응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8주간에 걸쳐 14회기의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적응은 단시간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더욱이 심리적 적응이란 위기상황과 욕구좌절에 대처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고려해야하므로 보다 장기간에 걸쳐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루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미성 (2001). 시설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국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목혜연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애 (2002). 부적응 학생들의 정서변화를 위한 음악의 치료적 접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모란 (2002). 탈북아동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보람 (2006). 새터민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음주행위: 사회적 지지와 음주기대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에스터 (2008).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노래 만들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 이상만 (1999).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인권포럼.
-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5권 제1호.
- 이인용 (2008). 음악심리치료를 통한 기독교인 내담자의 용서경험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창호 (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제5집.
- 전우택 (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대한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 정병호 (2001). 탈북학생 사회·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6).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 정진웅 (2005). '적응'을 넘어서: 탈북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제9권 제3호.
- 최미환 (2004). Extension of therapeutic song writing technique: 성인 신체재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Preparing-Exploring-Creating Process의 적용.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Proceedings of Symposium*, 1(1), 17-25.**
- 통일부 (2005). 새터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통일부.
-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2008). 새터민 현황 자료.

- Apel, W., & Daniel, R. T. (1969). *The Harvard Brief Dictionary of Music*.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Austin, D. (1991). The musical mirror: Music therapy for the narcissistically injured. *In Case Studies in Music Therapy*. Barcelona Publishers. 291-308.
- Berry, J. (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Chun, K., Organista, P., & Marin, 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rczon, R. M. (1997). *Music therapy group vignettes*. Barcelona Publishers. (이정실 역. 집단 음악치료. 학지사. 2004)
- Boxil, E. H. (1984).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Music therapy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김태련 외 편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Bruscia, K. E. (1987). **음악치료의 즉흥연주 모델**(*Improvisational models of music therapy*). 김군자 역(1998). 서울: 양서원.
- Bruscia, K. E. (1998). *The dynamic of music psychotherapy*. Barcelona Publishers.
- Gaston, E. T. (1968). *Music in therapy*. N. Y: The Macmillan Company.
- Kuo, W. H., & Tsai, Y. (1986). "Social networking hardiness and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 Radocy, R. E., & David Boyle, J. (1997). *Psychological foundations musical behavior*.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 Smart, J. F., & Smart, D. W. (1995). Acculturation stress of hispanics: Loss and challenge.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75, 390-396.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641.

- 게재신청일: 2009. 04. 23.
- 수정투고일: 2009. 05. 01.
- 게재확정일: 2008. 05. 11.